

데스크시각

오주승



서울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으로 명명된 수도 한복판의 모습은 올해 참으로 변화무쌍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식 집단 응원문화의 주무대였던 서울광장은 올 봄과 여름으로 이어지는 수개월동안 한국 사회 이념 지도의 축소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100회를 넘어 계속됐다. '촛불'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킨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배신감, 울분이 뒤섞여 표출했다. 촛불에 맞선 맞불시위로 보수·진보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곳도 바로 서울광장이다.

'法治' 앞세운 공안정국 우려

최대 수심만명이 참여했던 거대했던 촛불행렬은 현재 초라할 정도로 규모가 줄었다. 소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연행자만 남고 있다. 광주 금남로 촛불집회도 사실상 중단됐다. 촛불은 '법치'(法治)의 가치를 높이 등 정부에 의해 쫓기고 있다.

최루액과 물대포가 등장하고 불법시위 사법 검거 포상금이란 기상천외한 발상도 나왔다. 반대어론으로 백지화됐지만 불구 속사범은 2만원, 구속사범은 5만원으로 액수에 차등까지 둔 포상금제도 구상은

촛불, 올림픽, 종교

경찰 수뇌부의 의식구조를 엿보게 한다. 급기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여성시위자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했다는 인권문제까지 불거졌다.

지난 25일 서울광장에서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환영식과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되는 날이었다. 광장은 모처럼 국민화합의 장(場)이었다. 광장에는 올림픽 영웅들을 보려는 시민 2만여명이 몰렸다. 시민들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태극전사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쇠고기 문제와 촛불시위로 지지율이 급

락했던 이 대통령으로서의 한국팀의 올림픽 선전은 그야말로 단비였다.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흔들다 비난을 샀지만 올림픽 특수(特需)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팀의 선전이 이어질 때마다 이 대통령과 정부 지지율은 올랐다. 10%대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은 30%대까지 회복됐다. 촛불로 인해 집권 초반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그래서일까. 계획에 없었던 올림픽선수

과 같은 다종교 국가에서 종교계가 정부의 차별에 항의해 군중집회를 갖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있어야

불교계는 한국사회의 미덕인 종교의 다양성, 즉 다신앙에 대한 배려와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이 정부에 의해 손상됐다고 보고있다. 사실 종교편향 시비는 이 대통령이 차츰 측면이 강하다.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봉헌'으로 구설에 올랐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고소영 내각'(고대-소망교회-영남출신)이란 비난을 받았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정부 각 부처와 관계자들에 의해 조성된 종교편향 시비거리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종교 편향은 폭발력이라는 측면에서 쇠고기와는 비교가 안된다. 청와대도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때 '빠져던 사과를 말하며 국민에게 두번이나 고개 숙였다. 그런데 촛불이 사그라들자 확 변했다. 결국 진정성이었다.

대통령은 불교계에 직접 사과해야한다. 또 종교 편향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잘못하면 서울광장을 울리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1조)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헌법 20조)로 바뀔지 모른다.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시설

여수·상하이 '엑스포 협력' 상생 계기돼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2010 상하이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6일 상호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는 한승수 총리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 양국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양해각서는 모두 14개 항이다. 조직과 운영 등 세계박람회 정보를 공유하고 직원의 파견 및 연수, 관광·마케팅 협력, 민간단체의 상호 방문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상하이박람회가 끝나면 대표를 여수에 보내 세계박람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여수와 상하이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여수는 상하이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상하이는 한국의 적극적 참가를 통해 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중국 방문의 해, 2012년 한국 방문의 해에는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때마침 양국 정상이 주한 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가 크다. 광주는 총영사관 승격으로 전남·북과 제주 대 중국 청구역할을 맡게 됐다. 광주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경제, 문화, 관광 등 교류의 선봉에 선 것이다.

광주·전남은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여수엑스포와 J프로젝트, 기업도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중국과의 협력 및 교류 확대는 필수적일 것이다. 광주와 전남도는 모처럼 맞은 기회를 활용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해각서의 이행이다. 여수와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올 4/4분기에 서울에서 '양해각서 이행방안 협의회'를 연다. 양국이 약속을 철저히 실천해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열어갈 길 기대한다.

D-9 광주비엔날레 '감동' 기대된다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아예 서울에선 미술 관계자와 언론인들을 초청, '광주비엔날레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하루 전 광주에선 개막식에 참석할 광주 시민들을 초청하는 '빛의 사람들 0708'이 열렸다. 광주비엔날레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7회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다음달 5일부터 11월5일까지 광주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축제로 펼쳐진다. 주 전시장만 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립미술관, 의제미술관, 대인시장, 광주극장 등 5곳에 달한다. 광주 전체가 예술 및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올 비엔날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광주비엔날레와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권에서만 요코하마비엔날레, 상하이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등 7개의 국제미술행사가 열린다. 광주가 가장 먼저 개막하는 만큼 세계 미술계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쟁은 치열하다. 부산 등 국내는 물론 외국의 각 도시마다 특성을 내세워 관람객 유치에 나서면서 '비엔날레 전쟁'을 치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 최고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번 대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쿠이 엔위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관심이다. 오쿠이 총감독은 "80년 광주항쟁이 전시의 중심적 개념"이라며 "현대미술과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는 매우 놀라운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엔날레와의 차별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쿠이 총감독의 자신감이 '희망사항'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엔날레의 성공 여부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관람객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대회, 아시아의 허브 비엔날레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최희동



강희제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불린다. 누루하치의 증손자이자, 북경을 함락시킨 순치제의 아들로서 8살에 왕위에 올라 61년간 왕위를 지키며 청나라의 토대를 만든 실질적인 창업주다. 요즘 중국의 지도부는 '강희제 배우기'에 한창이다. 강희제의 좌우명은 '국공진력(鞠躬盡力)'이다. 즉 '국공'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굽힌다는 뜻인데 황제의 좌우명으로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지금의 국가지도자들로서는 마음에 새겨야 할 행동지침이다.

참여정부의 실정과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탄생된

졌다는 독선이며,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흑백논리와 이데올로기의 경계에 머물고 있는 남북문제 그리고 보수·진보의 편 가르기는 이분법적인 낡은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는 실증이다. 여기에 종교편향의 문제까지 더해져서 국민들은 더욱 답답하다. 이런 이유로 1970~8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올림픽의 성과가 지난 4년 동안 피땀 흘린 선수들의 묵인에도 마쳐 정부의 처치인양 생색내려는 잘못된 사고와 고물가와 고실업, 내수시장 위축과 투자 공극의 부족 등

MB의 국공진력(鞠躬盡力)

MB정부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도 민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들만의 독선에 빠져있다.

그것은 사실 인위 시정부터 예견되었으리라 강부자내각의 구성으로 현실화됐다. 그래도 국민들은 충선을 통해 다시 한 번 믿음을 보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서투른 외교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했다.

강희제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방과 참여, 공유를 전제로 하는 웹2.0 시대다. 우리 국민들이 월드컵 때 보여준 길거리 응원, 정계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집회 문화가 그것일 거라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와 화합, 소통을 부르짖으면서도 MB정부는 아직도 일방적으로 일기만 하는 웹1.0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

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기진맥진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 산업화의 패러다임을 되풀이하고 있는 경제 정책, 시대 외교, 언론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행위, 철학이나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가 그렇다.

양자택일의 강요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관용과 차이를 허용하는 사회,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진화된 실용주의 사회인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현명한 군주는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하고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MB의 국공진력을 바라는 마음이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전남대총동창회 사무총장 2006년 6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생산자·소비자 직접 연결 도심 직거래장터 상설화를

1천원짜리 농축산물의 유통비용이 무려 560원이나 된다고 한다.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왜곡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고되게 농사 지어 봤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보다 중간상인들이 취하는 마진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산지의 생산자가 피해자가 되는가 하면 도시의 소비자도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니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결국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못해 안타깝고 서글프기 그지 없다.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직거래 한다던 생산품 가격을 21.9% 높게 받고 소비자는 일반 소매점보다 7.7%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유통구조의 개선이 절실함은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유통구조 단계별로 감시·감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또 지자체가 나서서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도심 직거래장터를 상설화해야 한다. <최침야>·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기고

신상순



영어 속담에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 서도 사라진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그 독일의 사정이 아니고 범세계적으로 통할 것이다. 우리는 직접 눈앞에 실물을 보므로써 그 실물에 관련된 여러 사연들을 상기하고 마음 속으로 느끼게 된다. 옛 전남도청 앞 보수대 근처를 거닐다 보면 힘찬 물줄기 너머로 옛 전남도청의 건물에 두 장의 현수막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유일한 원형 5·18 사적지 도청을 보존하여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문화중심도시가 건설되어야 합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도청을 부수면 내일 아이에게 뭐라 말할 것입니까?'이

5·18 역사 땅 속에 묻어버리려는가

다. 국제적 현상 공모로 결집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이 기공식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옛 전남도청 건물의 처리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5·18과 관련된 사물은 절대 없애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미국 독립전쟁 때 큰 역할을 한 보스턴시를 보자. 보스턴만 플라마스 해변에 플라마스바위가 있다. 1620년 102명의 필그림 조상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이곳에 상륙해 배의 밧줄을 이 바위에 땀과로 전해진다. 매사추세츠 주는 이 바위의 훼손(붕괴 또는 관공작들의 기념품 채취)을 막기 위해 석조 전각을 구축했다. 바닷가의 불품없는 바위에대 말이다.

보스턴에는 이른 바 '자유'의 오솔길'이 있다. 1776년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적지의 안내를 위해 보도 중심에 붉은 블록으로 포장해 그 길을 따라가면 이 사적지에 도달한다. 필자는 2년 전 이러한 사실을 5·18 관계자에

게 알리고 광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시를 보자.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5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중세에 학생들의 술타령이 심했던 모양이다. 시민들의 불평으로 '학생감독'이 설치돼 술주정하는 학생들을 잡아 가둠다. 이 감독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필자도 호기심 삼아 이 감독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벽, 천정에까지 수감됐던 학생들의 낙서가 가득했다. 당시 학생들 생활의 편모를 추측하기에 충분했다. 하이델베르크시는 이를 보존해 많은 관광객을 흡수하고 있다.

광주는 예향이며 의향이다. 불의와 학정에 저항해온 광주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후세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물들을 새겨들 만든다고 할어 없애는 것은 역사의 말살이며, 그 역사를 살아온 민족의 말살이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 100만 명을 학살한 가스강당을 포함한 건물들이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다. 건물 입구에 하버드대 철학교수 조지 산타야나의 경구가 걸려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다' 독일인들은 그들 선인들이 범한 인륜을 저버린 범죄자들을 통감하고 2세들의 역사책에 멍하게 교훈으로 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버리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마땅히 산타야나의 경구를 읊어야 하고 5·18관련 사물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

<전남대 명예교수·광주국제교류센터 상임고문>

고부가가치 산업 '원전' 활성화 공감대 형성 필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외 평가가 엇갈린다. 국외에서는 원자력발전량 세계 6위의 원전강국이 된 우리 나라를 부러워한다. 또 많은 나라의 환경단체들도 국민 생활과 국익을 위해 원전 건설 여론을 형성하고 이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원전의 산업 기여도나 국민생활영위는 도외시한 채 '만약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우려해 '반대' 일색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철 최대 전력소비량을 경신하고 있다. 썬더워가 기승을 더하면서 에어컨이 여름나기 필수품이다. 에어컨 사용에 원전은 큰 역할을 한다. 즉, 국

민 편의에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화력발전과 달리 환경오염도 없다. 이런 원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전은 귀중한 에너지원이자 고부가가치의 자산이다. 원전에 대해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소수보다는 다수,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전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발전된 기술을 수출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전사업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김성수>·영광군 흥농읍

無等鼓

몇해 전 인거리에 방영됐던 '이경규가 간다'라는 TV프로가 있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을 선별, '양심'이라는 이름의 병창고를 상으로 주었다. 이름하여 '양심 병창고'. 상도 상이지만 수상 자체가 갖는 의미가 더

컸다. 이렇듯 이 프로는 우리 사회에서 무의식중에 위반하기 쉬운 질서나 불법 등에 일침을 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각종 불법이 만연하면 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신고토록 해 보상을 주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과라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 주변을 감시(?)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 '카라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를 신고, 정부로부터 정해진 보상을 타내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정부는 몇해 전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다 '문벌이 끈'들에게 약용되는 폐단이 발생하자 잠시 중단했다 다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 '에파라치'라는 것도 생긴다. 정부가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총산 천안시 봉명동 주민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발생 우려가 큰 곳에 이른바 '양심 거울'을 설치해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센터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양심을 스스로 비춰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를 도입했다. 지름 1m, 높이 1.5m 크기로 설치된 양심 거울은 '당신의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불리며 우리 주변을 감시(?)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 '카라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를 신고, 정부로부터 정해진 보상을 타내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정부는 몇해 전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다 '문벌이 끈'들에게 약용되는 폐단이 발생하자 잠시 중단했다 다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함께 쓰레기 배출 요령을 적어놓고 '합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유도한다. 감시용 카메라 대신 주민 스스로 환경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센터가 설치한 양심 거울. 우리 지역 주민센터들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1)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 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